

AI 글쓰기 플랫폼 기반 성찰적 글쓰기 활동이 글쓰기 효능감, 글쓰기 수행 수준, 자기성찰태도에 미치는 효과

박혜림*

배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Effects of AI Writing Platform Based Reflective Writing Activities on Learners' Writing Self-Efficacy, Writing Performance, and Self-Reflection Attitude

Hye-Rim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Baewha Women's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AI 글쓰기 플랫폼을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활동이 학습자의 글쓰기 효능감, 글쓰기 수행 수준, 자기성찰태도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혼합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A대학교 '글쓰기와 소통' 수강생을 대상으로 세 번의 사전·사후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성찰 저널 분석을 통해 글쓰기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학습자들은 자기 이해 관련 10개 글감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한 뒤, AI 피드백을 참고하여 고쳐쓰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활동 참여 이후 글쓰기 효능감, 글쓰기 수행 수준, 자기성찰태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특히, AI 피드백은 글쓰기를 '수행 가능한 과제'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평가 준거 기반 피드백은 글의 완성도를 높여 글쓰기 수행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자기 이해를 주제로 한 반복적 고쳐쓰기는 자신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여 자기성찰태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효과적인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대학 글쓰기, AI 글쓰기 플랫폼, AI 피드백, 글쓰기 효능감, 자기성찰태도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reflective writing activities utilizing an AI writing platform on learners' writing self-efficacy, writing performance, and self-reflection attitudes. Employing a mixed-method approach, the research statistically verified pre- and post-test changes in the three variables among students enrolled in "Writing and Communication" at A University. Additionally, learners' writing experiences were explored in depth through the analysis of reflection journals. Participants initially drafted responses to 10 writing prompts focused on self-understanding and subsequently engaged in iterative revisions incorporating AI-generated feedback. The results indic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ll three variables following the intervention. Specifically, AI feedback enabled learners to perceive writing as an achievable task, while criteria-based feedback enhanced writing quality and performance. Furthermore, iterative revisions focused on themes of self-understanding promoted personal reflection and strengthened learners' self-reflective attitud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inform the integration of AI into future university writing curricula.

Key Words : College Writing, AI Writing Platform, AI Feedback, Writing Self-Efficacy, Self-Reflection Attitude

*교신저자 : 박혜림(edulove@baewha.ac.kr)

접수일 2026년 01월 31일

수정일 2026년 03월 17일

심사완료일 2026년 04월 07일

1. 서론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성형 AI를 글쓰기 수업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이 수업 설계안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되기 보다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학습자가 어떤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를 어떻게 해석·선택·반영했는지와 같은 과정 정보가 교수학습 설계 내에서 충분히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AI 피드백이 제공되더라도, 그 피드백이 실제 수정 수행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이에 따른 수행 변화를 교수자가 확인·조정하기 어렵고, 학습자 역시 피드백을 단편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AI 피드백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개별적 도구 사용을 넘어 초고 작성-피드백 확인-고쳐쓰기의 과정이 수업 운영 내에서 체계적으로 구현되고, 교수자가 이 과정 전반을 점검·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습관리 시스템 기반의 통합적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대학 글쓰기 교육은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점검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 및 성찰 역량 개발에도 중점을 둔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서는 많은 학생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막연한 부담을 느끼거나, 글쓰기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드백은 단순히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 수정 방향을 구체화하여 학습자가 반복적인 고쳐쓰기를 지속하도록 촉진하는 학습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 반복적 고쳐쓰기를 통해 글을 점검·수정하는 경험은 글쓰기 능력 향상뿐 아니라, 과제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는 확신, 즉 글쓰기 효능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1]. 따라서 학습자의 글쓰기 효능감과 실제 수행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제공되는 구체적 피드백과, 이를 검토·수용하며 체계적으로 고쳐 쓰는 반복적 수행 경험이 필수적이다[2].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AI 글쓰기 플랫폼은 교수자가 설정한 평가 준거를 바탕으로 글의 구조, 전개, 어휘문법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고, 진단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교수자의 피드백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3, 4]. AI 플랫폼은 학습자가 자신의 글을 상대적으로 객관화하여 점검하고 수정·보완을 반복하도록 지원하며, 글쓰기를 '수행 가능한 과제'로 인식하게 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고쳐쓰기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글의 완성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가 준거

기반 피드백을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과정은 학습자가 경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자기성찰을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5].

다만 AI 기술을 대학 글쓰기 교육에 적용한 실전은 비교적 최근의 영역으로,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습자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더욱이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생성형 AI가 아니라 평가 준거 기반 AI 글쓰기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변화를 양적으로 검증하고, 그 변화 양상을 질적 자료를 통해 심층적으로 해석·보완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 글쓰기 플랫폼을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활동이 학습자의 글쓰기 효능감, 글쓰기 수행 수준, 자기성찰태도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2주간 진행된 성찰적 글쓰기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활동 참여 전·후에 나타난 각 변인의 변화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고, 성찰 저널 분석을 통해 변화의 양상을 학습자의 경험 언어로 보완·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AI 글쓰기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글쓰기 플랫폼을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활동 참여 전·후에 학습자의 글쓰기 효능감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둘째, AI 글쓰기 플랫폼을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활동 참여 전·후에 학습자의 글쓰기 수행 수준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셋째, AI 글쓰기 플랫폼을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활동 참여 전·후에 학습자의 자기성찰태도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AI 글쓰기 플랫폼 활용 글쓰기의 특성

AI 기반 글쓰기는 문법 교정이나 자동 채점을 넘어, 인공지능을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하는 '스캐폴딩(Scaffolding)'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강정구·표시연(2025)은 ChatGPT 활용이 아이디어와 어휘 제공을 통해 표현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확장을 지원한다고 보고하였고[5], 윤인선(2023)은 AI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창의적·비판적 사고 역량을 대체할 수 없으며

로 글쓰기 교육은 결과보다 사고 과정의 경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6]. 즉, AI는 사고 활동을 '대체'하기보다 사고 과정을 '지원'하는 장치로서 기능할 때 교육적 의미가 커진다.

대학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AI 플랫폼은 크게 자동 채점 및 피드백 시스템과 생성형 AI 기반 창작 지원 도구로 구분된다. '키위(keewi)'나 '자작자작(jajakjajak)'과 같은 전용 플랫폼은 학습자의 초고를 분석하여 문법·어휘문장 구조뿐 아니라 주제 적합성, 조직의 논리성, 표현의 적절성 등 평가 준거별 진단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4]. 이러한 다각적인 피드백은 교수자의 개별 첨삭 지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가 반복적으로 점검·수정하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AI 글쓰기 플랫폼은 문장 교정 기능에 한정되기보다, '초고-피드백-수정'의 반복을 촉진하는 학습 환경으로 이해될 수 있다.

AI 플랫폼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이점은 여러 가지로 보고된다. 먼저, 대규모 강의에서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교수자는 부담을 줄이고, 학습자는 원하는 때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I 플랫폼이 요구하는 '근거 자료 보강'이나 '어휘 적절성 향상' 등의 피드백은 학습자가 관련 지식을 찾아보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글쓰기 수행 수준의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7, 8].

다만 AI는 맥락적 이해나 정서적 뉘앙스, 창의적 표현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동 평가의 오류 가능성도 보고된다[4]. 또한, AI 의존이 심화될 경우 자기효능감 저하나 글에 대한 책임 의식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점은 AI 피드백이 학습자의 비판적 검토와 선택적 수용을 전제로 활용될 때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AI 글쓰기 플랫폼의 장점과 한계를 반영한 수업 설계가 필요하다.

2.2 글쓰기 효능감

글쓰기 효능감은 필자가 자신의 쓰기 능력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신념이자, 특정 쓰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의미한다[9, 10]. 글쓰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회피하기보다 이를 수행 가능한 과제로 인식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제 수행을 지속하며 끝까지 완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글쓰기 효능감은 '글을 잘 쓴다'는 결과 중심 자기평

가보다, 주어진 글쓰기 과제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을 스스로 수행해 낼 수 있다고 믿는 과정 중심 수행 신념에 가깝다[1, 11]. 따라서 효능감이 강화될수록 글쓰기 시작 단계의 막막함과 부담이 완화되고, 수정·보완을 반복하는 고쳐쓰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히 적시에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AI 피드백은 학습자가 초고를 점검하고 고쳐 쓰기 과정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글쓰기를 수행 가능한 과제로 인식하게 하고 과제 완성에 따른 성공 경험을 축적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험은 글쓰기 효능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강화된 글쓰기 효능감은 글쓰기 수행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11].

2.3 성찰적 글쓰기와 자기성찰태도

성찰적 글쓰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정서, 학습 과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이를 재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심화하도록 돕는 교수·학습 전략이다[12, 13].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찰적 글쓰기 경험이 대학교육에서 자기조절학습, 학업 성취, 학습 지속성 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12, 14]. 특히 자기 이해를 주제로 한 성찰적 글쓰기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 감정이나 느낌, 행동 방식을 직면하며, 경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고·감정·행동을 깊이 이해하고 점검하는 태도, 즉 자기성찰태도[8]와 관련된다.

김민경·이정미(2018)의 연구에서도 구조화된 성찰적 글쓰기 경험 이후 참여자들의 자기 인식과 자기성찰 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15]. 이는 성찰적 글쓰기가 단순한 글쓰기 기술의 습득을 넘어, 학습자가 자신의 내적 경험을 언어화하고 그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성찰태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와 같이 AI 글쓰기 플랫폼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초고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경험은,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정서·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되돌아보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기성찰태도 강화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연구 참여자는 2025학년도 2학기 A대학교 교양과목

으로 개설된 ‘글쓰기와소통’ 수강생으로, 모두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1학년 신입생들이다. 전체 수강생은 68명이었으며, 이 중 사전·사후 진단과 성찰적 글쓰기 활동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성찰 저널을 제출한 6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AI 글쓰기 플랫폼을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효능감, 글쓰기 수행 수준, 자기성찰태도의 변화를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글쓰기 활동은 9월 8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총 1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10주 동안 매주 하나의 글감에 대한 초고 쓰기 및 고쳐쓰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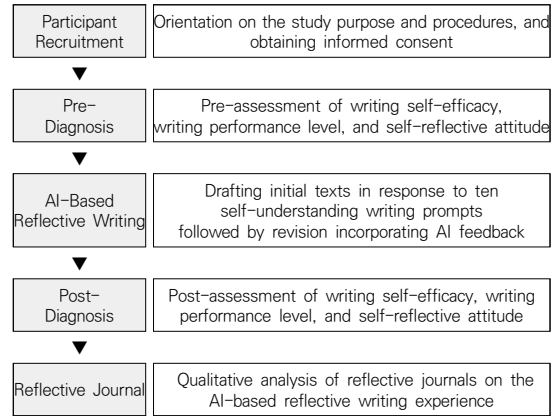
글쓰기 활동을 위한 글감은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 행동 방식 등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글쓰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 2인(연구자 포함)의 검토를 통해 AI 글쓰기 플랫폼(자작자작)에 탑재된 관련 글감 중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글감 간 난이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제의 추상성 수준과 지시문의 복잡도, 요구되는 서술 범위를 기준으로 글감을 비교·검토하여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글감은 감사의 순간들,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 내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 소비 패턴으로 본 나의 가치관, 실패가 가르쳐 준 것들, 선택의 기로에서, 나를 성장시킨 질문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 나의 편견과 마주치기, 타인의 관점으로 본 나 등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매주 제시된 글감과 작성 가이드를 토대로 스스로 글을 작성한 후, AI가 제공한 피드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초고를 고쳐쓰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한 AI 글쓰기 플랫폼은 ‘자작자작(https://jajakjajak.com/)’으로, 이 플랫폼은 교수자가 설정한 평가 준거를 기반으로 AI가 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 준거 기반의 AI 피드백은 글쓰기 활동에서 필수적인 고쳐쓰기 활동을 촉진하고 강화한다.

연구 절차는 첫 번째,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참여 동의를 통한 참여자 모집, 두 번째, 글쓰기 효능감, 글쓰기 수행 수준, 자기성찰태도 관련 사전 진단, 세 번째, AI 글쓰기 플랫폼을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활동, 네 번째, 글쓰기 효능감, 글쓰기 수행 수준, 자기성찰태도 관련 사후 진단, 다섯 번째, 성찰 저널 수집 절차로 진

행되었다([Fig. 1]).



[Fig. 1] Research Procedure

3.3 연구 도구

3.3.1 글쓰기 효능감

글쓰기 효능감 측정을 위해 이지현(2021)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쓰기 효능감 검사 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일부 문항을 발췌·수정하였다[10]. 문항은 ‘나는 글을 쓸 때, 내 생각을 쉽게 조직할 수 있다.’, ‘나는 글을 쓸 때, 글을 쓰고 나서 고쳐야 할 곳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나는 글을 쓸 때, 알맞은 근거를 들어가며 내 주장을 드러내는 글을 쓸 수 있다.’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사전·사후 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가 모두 0.900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참조).

<Table 1> Reliability Verification Results

	No. of items	Cronbach- α		Scale
		pre-	post-	
Writing self-efficacy scale	10	.900	.915	5-point Likert scale
Self-reflective attitude	10	.910	.878	

3.3.2 글쓰기 수행 수준

글쓰기 수행 수준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AI 피드백의 평가 준거를 토대로 평가하였다. 평가 준거는 글쓰기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 2인이 함께 설정하였으며, 각 준거의 비중을 달리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 준거(비중)는 주제 충실성(10), 구성의 체

계성(20), 근거 제시의 구체성(20), 자기성찰의 깊이(20), 관점과 태도(10), 어휘 사용의 적절성(10), 문법적 정확성(10) 등 총 7개로 구성하였다.

3.3.3 자기성찰태도

자기성찰태도 측정을 위해 한주연(2023)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자기성찰-통찰 검사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기성찰 영역의 일부 문항을 발췌 수정하였다[16]. 문항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검증하는데 매우 흥미를 느낀다.', '내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내 생각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등을 포함하여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은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사전·사후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가 모두 0.800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3.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혼합연구 방법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성찰적 글쓰기 활동 참여 전·후에 학습자의 글쓰기 효능감과 자기성찰태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글쓰기 활동 시작 전과 종료 후에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글쓰기 수행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회차와 10회차 글감에 대한 초고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설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글감은 수업 설계 시 난이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평가 준거에 따라 글쓰기 수업 담당 교수자 2인(연구자 포함)이 독립적으로 평정하였다. 이후 두 평가자의 평정 결과를 상호 검토하여 불일치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평가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고, 평가 과정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PC+29.0을 활용한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사전·사후 변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한편, 성찰적 글쓰기 활동 전반에 대한 학습자들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성찰 저널을 분석하였다. 성찰 저널은 글쓰기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글쓰기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개방형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내용 분석은 글쓰기 수업 담당 교수자 2인(연구자 포함)이 성찰 저널 자료를 토대로,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고 의미를 구성한 뒤, 주제를 범주화하는 단계를 거쳐 수행하였다[17]. 또한 분석 과정에서 두 교

수자는 도출된 진술, 의미 구성, 주제 범주를 상호 검토하며 반복적으로 논의하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합의 절차를 통해 범주를 조정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글쓰기 효능감의 변화

글쓰기 활동 참여 전·후에 실시한 글쓰기 효능감 검사 결과(<Table 2> 참조), 사전 평균은 2.94(SD=.669), 사후 평균은 3.41(SD=.623)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5.474$, $p<.001$). 효과크기(Cohen's d)는 0.69로 산출되어, 변화의 크기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 활동 참여 이후 학습자의 글쓰기 효능감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results of the paired samples t-test on pre- and post-test scores for writing self-efficacy

n=63					
	M	SD	t	p	Cohen's d (dz)
Pre-	2.94	.669	-5.474	.000*	0.69
Post-	3.41	.623			

* $p<.001$

양적 분석으로 확인된 글쓰기 효능감의 향상은 성찰 저널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글을 잘 쓰게 되었다'라고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 어려움이 줄어들었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글쓰기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고, 글쓰기를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제'에서 '해 볼 만한 활동'으로 재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한 학생은 글쓰기에 대한 막막함이나 두려움이 줄어들어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글을 쓸 때마다 막막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빈 문서를 한참 바라보곤 했고, 문장을 쓰더라도 '이게 맞나?' 하는 불안감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 활동을 통해 글의 구조를 잡는 법과 생각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익히자 두려움이 크게 줄었습니다"(S62)

또 다른 학생도 글쓰기 시작 단계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감소 되었다고 밝혔다.

“글을 쓸 때 막연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주제를 보고 글을 잘 쓸 수 있을까하는 걱정에 자꾸 시작을 미뤘고, 글을 써도 중간에 멈추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글로 옮기고, 표현하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S3)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언급하면서 AI 기반 글쓰기 활동을 통해 부담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한 학생은 글쓰기 행위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반복적인 글쓰기를 통해 부담이 줄고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주제가 주어져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컸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어려워 글쓰기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주어진 한 가지 주제로 형식에 맞춰 글을 쓰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줄고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S20)

다른 학생은 고쳐쓰기 과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AI 피드백을 통해 고쳐쓰기 과정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처음엔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AI의 피드백을 받고 나서 다시 보니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고쳐 쓰는 것이 조금 힘들게 느껴졌다. 하지만 AI 피드백 자체가 구체적이고 명확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계속 고쳐 쓸 수 있었다.”(S3)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초고 작성 이후 AI 피드백을 기반으로 고쳐쓰기를 반복하면서 글쓰기 과정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였고, 글쓰기를 끝까지 수행 가능한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자신감 형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4.2 글쓰기 수행 수준의 변화

글쓰기 수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글쓰기 활동 참여 이후 학습자의 글쓰기 수행 수준은 참여 초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평가 점수를 비교한 결과(〈Table 3〉 참조), 사전 평균은 71.8(SD =4.841), 사후 평균은 78.3(SD=5.042)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t=-12.762$, $p<.001$). 효과크기(Cohen's d)는 1.61로 산출되어, 변화의 크기는 큰 수준(large effect)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 활동 참여 이후 학습자의 글쓰기 수행 수준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results of the paired samples t-test on pre- and post-test scores for writing performance

	M	SD	t	p	Cohen's d (dz)
Pre-	71.8	4.841	-12.762	.000*	1.61
Post-	78.3	5.042			

n=63

* $p<.001$

성찰 저널 분석 결과는 양적 분석으로 확인된 글쓰기 수행 수준의 향상의 과정을 맥락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참여자들은 AI 피드백을 반영하여 글을 반복적으로 고쳐 쓰는 과정에서 작성한 글의 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근거 제시의 구체성, 표현의 정확성과 어휘 사용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한 학생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글쓰기 습관을 점검하고, 특히 글의 전개 방식과 논리적 흐름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내가 글을 쓰는 방식을 돌아볼 수 있었다. 기승전결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사례를 기반으로 나의 주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거나 하는 식의 나의 글쓰기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덕분에 글을 쓸 때 사례를 더 구체화하거나, 그 사례를 통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하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다.”(S2)

또 다른 학생은 AI 피드백에 제시된 점수(범위)와 준거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수정 방향을 중심으로 글을 고쳐 쓰면서 글을 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 AI 피드백을 받았을 때 피드백 상단에 있는 점수를 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 같다. 내 글에서 가장 부족했던 점이 근거와 구체성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다른 부분 보다는 이 부분을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수정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점점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번 글을 고치다 보니까 글의 짜임새나 구조가 체계적으로 변하는 것이 보여서 글을 고치면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던 것 같다.”(S23)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고쳐쓰기 과정이 글의 명확성과 설득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고하였다. 한 학생은 AI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글에 내포된 모호함과 불완전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다양한 평가 준거에 따른 피드백을 토대로 글을 반복적으로 수정하면서 글의 명확성과

설득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내가 글을 쓰면서 느꼈던 모호함과 불완전함이 피드백에 모두 명시되어 있어 AI가 무척 정교하고 예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정도의 오류만 파악할 거라 생각했는데 주제의 충실성, 근거의 구체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놀라웠다. AI의 피드백을 통해 글을 여러 번 고쳐 쓰며 전보다 글의 명확성, 설득력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였다.”(S21)

또 다른 학생은 AI 피드백을 통해 표현상의 어색함이나 반복적인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면서 글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처음 AI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고쳐야 하나?’라는 생각에 부담을 느꼈다. 하지만 수정 과정을 반복하며 AI가 제 글의 객관적인 오류를 즉각적으로 찾아준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제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어색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으면서, 평소 글쓰기 습관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정할 수 있었다. AI 덕분에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글을 객관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S15)

아울러 어휘 선택과 관련하여, 한 학생은 다양한 유의어 어휘의 뉘앙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다양한 유의어 활용을 통해 글이 풍성해지는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의어, 미묘한 뉘앙스의 어휘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맥에 꼭 맞는 어휘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S1)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초고 작성 이후 AI 피드백에 제시된 평가 준거를 참고하여 글의 구조와 전개, 근거의 구체성, 표현의 정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며 고쳐쓰기를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글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4.3 자기성찰태도의 변화

글쓰기 활동 참여 전·후에 실시한 자기성찰태도 검사 결과(〈Table 4〉 참조), 사전 평균은 3.60(SD=.769), 사후 평균은 3.89(SD=.562)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128$, $p<.01$). 효과크기(Cohen's d)는 0.39로 산출되어 변화의 크기는 작은 수준(small effect)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후검사에서 표준편차가 감소한 점은 학습자 간 성찰 수행 수준의 편차가 완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반복적인 자기성찰 글

쓰기와 고쳐쓰기 과정을 통해 성찰 수행이 점차 구체화된 양상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4〉 The results of the paired samples t-test on pre- and post-test scores for self-reflective attitude

	M	SD	t	p	Cohen's d (dz)
Pre-	3.60	.769	-3.128	.003*	0.39
Post-	3.89	.562			

n=63

* $p<.01$

양적 분석에서 확인된 자기성찰태도의 유의미한 변화는 성찰 저널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기 이해 관련 글감에 대한 글을 쓰고 고쳐 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불균형을 자각하거나 감정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성찰적 글쓰기가 자신에 대한 인식과 감정 해석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한 학생은 글쓰기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스스로 바라보는 나’와 ‘타인이 바라보는 나’를 함께 생각하고 글로 작성하면서, 자신을 객관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나 자신을 내부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이를 글로 적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부분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S2)

또 다른 학생은 글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글을 쓰면서, 스스로에 대해 단점부터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글을 다시 읽고 수정하면서 장점과 강점은 의식적으로 적어야만 떠오른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소 균형을 잃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S11)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글을 쓰고 고쳐쓰는 과정이 자신의 감정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경험이라고 보고하였다. 한 학생은 고쳐쓰기 과정을 통해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S3), 또 다른 학생은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소에는 지나쳤던 감정을 재인식하고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제시하였다(S55).

“글을 쓰고 수정하며, 제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S3)

“나에 대해 글을 쓰면서 내가 생각보다 감정을 잘 숨기고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글로 적어보니까 나한테 큰 의미였던 순간도 있었다.”(S5)

다시 말해, 학습자들은 자기 이해 글감에 대한 글쓰기 과정 즉, 초고 쓰기-AI 피드백 검토-고쳐쓰기를 반복하는 동안 자신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며, 경험의 의미를 다시 구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AI 글쓰기 플랫폼을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활동 참여 전후 학습자의 글쓰기 효능감, 글쓰기 수행 수준, 자기성찰태도에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2주간 성찰적 글쓰기 활동에 참여한 학습자 63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대응표본 t-검정으로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성찰 저널 분석을 통해 양적 결과에서 확인된 변화를 질적으로 보완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글쓰기 활동 참여 이후 세 변인은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크기 기준으로 글쓰기 효능감($d_z=0.69$)은 중간 수준, 글쓰기 수행 수준($d_z=1.61$)은 큰 수준, 자기성찰태도($d_z=0.39$)은 작은 수준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적 결과는 성찰 저널에서도 확인되었다. 학습자들은 초고 작성 이후 AI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글쓰기 과정에 대한 부담이 완화하였으며, 이러한 수행 경험은 글쓰기 과제를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과제 완수에 대한 자신감 형성으로 이어졌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글쓰기 효능감의 향상이 ‘글을 잘 쓰게 되었다’는 결과 중심의 변화라기보다, 글쓰기를 수행하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는 과정 중심의 수행 신념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글쓰기 수행 수준의 변화는 평가 준거 기반 피드백 점검-수정 과정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AI 피드백에 제시된 평가 준거를 토대로 글의 구조와 전개, 근거의 구성성, 표현의 정확성, 어휘 사용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며 고쳐쓰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검과 수정의 반복은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글쓰기 수행 수준의 향상과도 관련된 것

으로 보인다. 즉, 글쓰기 수행 수준의 변화는 평가 준거를 기준으로 자신의 글을 점검하고 수정 전략을 구체화하는 반복적 고쳐쓰기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18].

마지막으로 자기성찰태도의 향상은 자기 이해 중심 글감에 대한 반복적 고쳐쓰기 수행 속에서 구체화되었다. 자기 이해를 주제로 한 성찰적 글쓰기 과정에서 초고 쓰기-AI 피드백 검토-고쳐쓰기의 반복적 글쓰기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학습자들은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을 분명히 인식하며, 경험의 의미를 재구성했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성찰적 글쓰기 활동이 자기 이해와 경험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행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며[14], 이러한 성찰이 반복적 글쓰기 수행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AI 글쓰기 플랫폼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AI 글쓰기 플랫폼은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반복적 고쳐쓰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글쓰기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은 좋은 글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19], 실제 수업에서는 모든 학습자에게 충분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글쓰기 플랫폼은 교수자의 피드백 공백을 보완하고, 학습자가 피드백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글쓰기 수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 조건을 제공한다.

둘째, AI 글쓰기 플랫폼은 평가 준거에 기반한 구체적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글을 점검하고 수정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글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작자작’ AI 글쓰기 플랫폼은 교수자가 학습 목표와 과제의 특성에 맞추어 평가 준거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대학 수업이 개별 교수자에 의해 설계·운영되는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20], 수업 맥락에 적합한 피드백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평가 준거를 단순한 채점 기준으로만 제시하기보다,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점검 도구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준거별 적용 방식과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 글쓰기 플랫폼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AI 피드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활용 규칙을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다. AI 피드백은 고쳐쓰기 수행을 지원하는 데 유용하지만, 글의 맥락이나 개인적 경험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15]. 또한, 활용 방식에 따라 AI 의존도가 높아지고 학습자의 글쓰기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21]. 따라서 수업 운영 과정에서는 AI 피드백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글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재해석·재구성하여 반영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AI 활용의 범위와 목적, 표절 등 저작권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책임 있는 AI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22].

한편, 본 연구는 A대학의 글쓰기 수업 수강생만을 대상으로 통제집단 없이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에 기반하였다. 이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비교

집단을 포함한 연구 설계를 통해, AI 글쓰기 플랫폼을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활동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가 'AI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왜 해당 부분을 수정했는지' 등에 대해 서술한 AI 피드백 반영 과정에 대한 자기성찰 보고서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이 AI 피드백을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양상과 그에 따른 글쓰기 수행 및 성찰의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AI를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평가 준거 기반 체계적 피드백이 초고 작성-피드백 확인-고쳐쓰기의 순환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도록 학습지원시스템으로 수업을 설계·운영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효과적인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H.K.Jung, "Academic writing education with writing self-efficacy: In case of writing classes at Kangnam University,"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no. 60, pp. 413-449, 2018, doi: 10.20864/skl.2018.10.60.413.
- [2] H.Bae, "Curriculum operation and feedback strategies for improving writing self-efficacy: A case study of a university writing course,"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6, no. 5, pp. 101-112, 2022, doi: 10.46392/kjge.2022.16.5.101.
- [3] H.R.Park and U.Lee, "The educational effects of AI feedback in digital writing: A case study at A University," *Journal of Internet of Things and Convergence*, vol. 11, no. 2, pp. 15-22, 2025, doi: 10.20465/KIOTS.2025.11.2.015.
- [4] J.Kim, "The effects and limitations of using AI-based automatic writing feedback programs in writing classes: Focusing on the case of using KEEwi in reading and expression classes," *Journal of Yeongju Language & Literature*, no. 58, pp. 355-386, 2024.
- [5] J.G.Kang and S.Y.Pyo, "A comparative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writing 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impact of ChatGPT in reflective writing clas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5, no. 2, pp. 505-524, 2025.
- [6] I.Yoon, "Writing education and literacy competence in the age of generative AI," *Journal of Literacy Studies*, vol. 14, no. 4, pp. 13-40, 2023.
- [7] Y.M.Kim and K.H.Lee, "Aspects of rewriting using AI courseware," *Journal of Elementary Curriculum Education*, no. 43, pp. 15-28, 2025.
- [8] S.M.Chang, "ChatGPT has changed the future of writing education: Responses of writing edu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Journal of Writing Research*, no. 56, pp. 7-34, 2023, doi: 10.31565/korow.2023..56.001.
- [9] F.Pajares and Y. F. Cheong,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in writing: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9, pp. 437-455, 2003, doi:10.1016/j.ijer.2004.06.008
- [10] J.H.Lee, *The Effects of Teacher Feedback on High School Students' Writing Self-Efficacy*, M.S. thesis, Korea Univ., Seoul, South Korea, 2021.
- [11] C.H.Yoon and S.H.Lee, "College students' approaches to writing processes and their relation to writing performance: An exploratory study,"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3, no. 3, pp. 61-86, 2012, doi: 10.15753/aje.2012.13.3.003.
- [12] S.Y.Pyo, "The mediating effect of reflective journal writing on writing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 PBL writing course,"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ol. 15, no. 2, pp. 485-494, 2023.
- [13] D.Alt, "Higher education students' reflective journal writing and lifelong learning skills,"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2, Art. no. 707168, 2022, doi: 10.3389/fpsyg.2021.707168.
- [14] S.J.Lee and J.H.Yu, "The effect of self-reflective writing on undergraduate female students' self-leader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NU Journals of Women's Studies*, vol. 24, no. 2, pp. 69-96, 2014, doi: 10.22772/pnujws.24.2.201406.69.
- [15] M.K.Kim and J.M.Lee, "The effects of an online reflective writing program on self-awareness, self-reflection, and self-esteem among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 counseling psycholog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30, no. 1, pp. 1-24, 2018.
- [16] J.Y.Han, The Effects of Self-Reflection and Insight on Meaning in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 Seoul, South Korea, 2023.
- [17] P.F.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R. S. Valle and M. King, Eds. New York, NY, USA: Oxford Univ. Press, 1978, pp. 48-71.
- [18] M.K.Jeong, "An analysis of revision patterns based on self-assessment strategies in writing," Journal of Writing Research (Korean: Jakmun Yeongu), no. 17, pp. 69-100, 2013.
- [19] J.N.Jun,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phased feedback of academic writing: The case of academic criticism assignments at 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8, no. 1, pp. 79-112, 2014.
- [20] H.J.Kim,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and improvement plans for college writing studies," Hanminjok Eomunhak, no. 93, pp. 247-278, 2022.
- [21] B.Cho, "Directions for university writing education and assessment in the era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onam Language and Literature, no. 44, pp. 7-24, 2023.
- [22] D.W.Noh and M.S.Hong, "Strategies for solving the AI plagiarism problem and educational applications of ChatGPT,"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no. 82, pp. 71-102, 2023.

박 혜 림(Hye-Rim Park)

[중신회원]



- 2007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2년 3월 ~ 2019년 2월 : 서울
신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배화여자대
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대학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에듀테크 등